

승기탕의 처방 고찰을 통한 임상활용 제안

장은수¹, 한우진², 허원영^{3*}

¹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²감초당 한의원, ³바른몸 한방병원

The Clinical Suggestion of *Seunggi-Tang* by Reviewing Therapeutic Methods

Jang Eunsu¹, Han Woojin², Heo Wonyoung^{3*}

¹Department of Diagnosi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²Korean Medical Clinics of Gamchodang, ³Korean Medical Hospital of Bareunbod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another Method of Treatment of *Seunggi-Tang* by reviewing ShanHanZaBingLun GuiLinGuBon

Methods: The book of ShanHanZaBingLun GuiLinGuBon published by the Eui-Seong-Dang in 2004 was used. All *Seunggi-tang* was researched and classified into Method of Treatment.

Results: *Seunggi-tang* included *Doinseunggi-tang*, *Soseunggi-tang*, *Jowiseunggi-tang*, and *Daeseunggi-tang*. There were two methods of using *Seunggi-tang*: the Ha treatment with usual volume and the Hwa treatment, with reduced volume. *Seunggi-tang* especially *Soseunggi* and *Jowiseunggi-tang*, were used not only as the Ha treatment but also as the Hwa treatment for several diseases such as gastrointestinal diseases with Bokman or Chogyonghudang.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s that *Seunggi-Tang* could be used Ha or Hwa treatment and Hwa treatment could be utilized in various clinical situation. Further study is needed.

Key Words : SangHanLun(傷寒論), GuiLinGuBon(桂林古本), Hwa-Treatment, Ha-Treatment, Eight therapeutic methods

서론

상한잡병론 계림고본(傷寒雜病論 桂林古本; 이하 계림고본)은 16권, 963조로 다양한 처방과 치법이 기술되어 있다¹⁾. 계림고본에서 ‘승기(承氣)’의 문헌적 의미를 살펴보면²⁾, 231조 ‘問曰 三焦竭 何謂也? 師曰 上焦受中焦之氣 中焦未和 不能消穀 故上焦竭者 必善噫, 下焦承中焦之氣 中氣未和 穀氣不行 故下焦竭者 必遺溺失便. [19]雜病例(金匱163)(心典141)’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下焦承中焦之氣’라

한 것처럼 ‘승기’란 하초가 중초의 기를 잘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나와 있다.

현재까지 승기탕(承氣湯)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승기탕(大承氣湯)은 뇌혈관질환에서 사하(瀉下)작용의 효과를 밝힌 연구³⁻⁵⁾, 사하작용에 대한 약리연구⁶⁾, 정신과질환에 사용하여 효과를 밝힌 연구⁷⁾, 신경계의 작용 효과를 밝힌 연구^{8,9)} 등이 있었다. 도인 승기탕(桃仁承氣湯=桃核承氣湯)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어혈병태에 작용하여 효과를 밝힌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¹⁰⁻¹²⁾. 소승기탕(小承氣湯)의 경우 사하

• Received : 13 July 2024

• Revised : 17 August 2024

• Accepted : 23 August 2024

• Correspondence to : Heo Wonyoung

Korean Medical Hospital of Bareunbody

Tel : +82-33-765-7501, Fax : +82-33-765-7511, E-mail : rizis@naver.com

작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체액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주장과 정신과질환의 하나인 기분장애(Mood Disorder) 환자에게 활용하여 효과를 낸 연구 등이 있다^{13,14}.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은 변비, 소갈, 구진성 두드러기, 피부염 등에 사용하여 효과를 밝힌 연구들이 있었다¹⁵⁻¹⁷. 이상을 볼 때 승기탕은 주로 사하작용, 활혈거어작용 등을 통해 중풍, 변비, 당뇨, 신경정신 질환 등에 응용되고 있었다. 즉, 지금까지 승기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하작용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개별 질병에 대한 효능에 방점을 둔 경우가 많다.

현대의학은 주로 효능과 기전을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해왔으며, 최근에는 동일한 성분이라도 용량을 달리하면 치료효과가 달라지는 지표들을 밝혀왔다. 아스피린의 경우 500mg 사용시 관절염이나 감기로 인한 발열과 근육통 등에 진통소염 효과가 있고, 100mg 이하를 사용할 경우 혈전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또한, 과일 특히 딸기에 많이 포함된 피세틴도 그 용량을 조절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에 활용하고 있다. 저용량 피세틴 요법은 염증을 제거하고, 항산화 효과를 내며, 고용량 요법은 노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를 낸다²⁰. 또한 한약재로 다용하고 있는 애엽의 경우 3-5g 사용하면 소화를 촉진하고, 8g 전후면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며, 15g 이상이면 위장관 염증과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²¹. 현대 중국에는 방약량효학(方藥量效學)이라고 하여 한약 용량에 대한 연구 분야도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성분이라도 용량을 달리 사용하면 치료기전이 달라지고, 인체에 작용하는 효과가 달라지는데, 이는 용량의 변화가 치칙(治則) 혹은 치법(治法)의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런 관점을 계림고본에서 승기탕을 사용한 조문에서 복용량의 변화를 통한 화법(和法)과 하법(下法)의 기준을 밝히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임상 및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림고본에서 ‘承氣’가 들어간 처방과 조문을 정리하고, 계림고본 문헌 분석을 통해 동일한 승기탕이라 하더라도 용량에 따라 화법과 하법으로 활용됨을 연구하여 ‘승기탕’의 임상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원서 및 용어 사용

본 연구에서 기본자료로 분석한 책은 계림고본 판본으로 2017년 출간한 동의상한잡병론(東醫傷寒雜病論) 조문과 원문을 사용하였다²⁾. 본 연구에 사용된 조문 번호는 계림고본에 사용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계림고본에서 한자로 되어 있는 원문이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처음 사용할 때는 한글과 한자표기를 하고 이후에 한글로 표현하였다. 다만 한자로 구성된 문장이나, 한자로 기술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 경우 한글병기 없이 한자로 기술하였다.

2. 계림고본 승기탕 처방과 치법 정리

1) 처방 선용과 치법 표기 조문 선별

본 연구에서는 계림고본에서 사용한 치법을 알아보기 위해 계림고본에서 963개 조문에서 ‘承氣’라는 한자가 사용된 처방을 뽑아 조문과 조문번호를 정리하였다.

2) 승기탕의 치법 구분

이렇게 뽑은 조문과 승기탕 처방에서 치법이 표기되어 해당 치법으로 볼 수 있는 조문을 결과 테이블로 정리하였다. 이런 과정 중에 사용된 치법 용어는 가급적 계림고본에 언급된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승기탕이 하법과 화법의 의미로 쓰인 대표 조문을 테이블로 정리하여 그 의미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승기탕 처방이 있는 조문을 보면서 치법의 표기 여부를 정리하였다. 조문에 치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조문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치

법을 구분하고 테이블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법이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문에 언급된 승기탕 방문(方文)을 정리하였다.

3) 분석

승기탕 처방을 도인승기탕, 조위승기탕, 소승기탕, 대승기탕, 그리고 승기배(承氣輩)로 구분하여 테이블에 조문근거를 제시하고, 화법과 하법을 의미하는 근거 조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기된 치법에 근거하여 승기탕을 크게 화법과 하법으로 구분하고 치법 표기가 되지 않아서 분류가 어려운 경우 불명확(Unclear)으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조문에 치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조문상의 의미를 해석하여 치법을 구분하고 결과 테이블로 정리한 뒤 이에 대한 구분 이유를 고찰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치법이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문에 언급된 승기탕 방문을 조문별로 비교 분석하고, 화법의 용량을 밝히기 위해 근거 조문을 찾아, 용량을 1일 단위로 표시하였다.

585, 558, 559, 560, 561, 658, 660, 777, 938, 942 조, 구체적 처방명이 아니라 승기탕, 승기배란 처방으로 제시된 조문은 156, 247, 356, 520, 616조였다. 승기탕이나 승기배의 방문에 소승기, 조위승기, 대승기탕이 제시되어 있어 통상 승기배라고 하면 소승기탕, 조위승기탕, 대승기탕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Appendix 1).

2. 승기탕 하법과 화법 복용량의 근거

승기탕은 통상 하법으로 쓰이며 소승기탕의 하법 사용례(712조)를 기준으로 용량을 살펴보면 1일에 일승이합(一升二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계림고본에서는 화법으로 사용된 근거조문(557조)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得病二三日 脈弱 無太陽柴胡證 煩躁 心下鞭 至四五日 雖能食 以小承氣湯少少與 微和之 令小安. 至六日與小承氣湯一升’라 하여 소승기탕을 복용할 때 ‘소소여(少少與)’ 즉 복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을 화법으로 설명하고 있다(Table 2).

3. 계림고본에 언급된 승기탕의 치법 정리

상한잡병론 계림고본의 승기탕 사용 조문에 언급된 치법을 살펴보면 도인승기탕은 공법(攻法)으로 언급되었다(409조). 소승기탕은 화법이 언급된 경우(513, 514, 556, 557조)와 치법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518, 519, 712조), 조위승기탕은 화법(372조)과 하법(397조)이 언급된 경우와 치법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329, 330, 408, 426, 512, 554, 555조), 대승기탕은 하법, 공법이 언급된 경우(521, 523, 546, 557, 558, 559, 560, 561, 562, 658, 660, 557조)와 치법

연구 결과

1. 계림고본에 언급된 승기탕 종류 고찰

계림고본에서 ‘승기(承氣)’가 포함된 처방으로는 소승기탕, 조위승기탕, 대승기탕, 도인승기탕(=도핵승기탕) 등이 있었다. 각각의 처방이 제시된 조문은 도인승기탕 409조, 소승기탕은 513, 514, 518, 519, 556, 557, 712조, 조위승기탕은 329, 330, 372, 397, 408, 426, 512, 554, 555조, 대승기탕은 513, 514, 517, 521, 523, 526, 544, 546, 547, 548, 557, 562,

Table 1. The Kind of *Seunggi-tang* in ShanHanZaBingLun GuiLinGuBon

Prescription	<i>Doinseunggi-tang</i>	<i>Soeseunggi-tang</i>	<i>Jowiseunggi-tang</i>	<i>Daeseunggi-tang</i>	<i>Seunggi-Bae</i>
Number	409	513, 514, 518, 519, 556, 557, 712	329, 330, 372, 397, 408, 426, 512, 554, 555	513, 514, 517, 521, 523, 526, 544, 546, 547, 548, 557, 558, 559, 560, 561, 562, 585, 658, 660, 777, 938, 942	156, 247, 356, 520, 616

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513, 514, 517, 526, 544, 546, 547, 548, 585, 777, 938, 942조)가 있었다. 그리고 승기배 또는 승기탕은 하법이 언급된 경우(616조)와 치법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156, 247, 356, 520조)가 있었다(Table 3)(Appendix 2).

4. 치법이 불분명한 승기탕 조문의 치법 정리

계림고본의 승기탕 사용 조문 중 소승기탕에서 치법이 언급되지 않았던 518, 519, 712조는 하법으로 추정된다. 조위승기탕에서 치법이 언급되지 않은 조문 중 329, 330, 408, 426, 554, 555조는 화법으로 추정되고, 512조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하법과 화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된다. 대승기탕

에서 치법이 언급되지 않았던 517, 544, 547, 548, 585, 777, 938, 942, 513, 514조는 하법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승기배 또는 승기탕에서 치법이 언급되지 않았던 조문 중 356, 520조는 화법으로, 156, 247조는 하법으로 추정된다(Table 4)(Appendix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찰에 기술하였다.

5. 승기탕의 방문 비교

계림고본의 승기탕 방문을 정리해 보면 도인승기탕은 ‘桃核五十個(去皮尖) 大黃四兩 桂枝二兩 甘草二兩(炙) 芒硝二兩’로 구성되어 있고, 소승기탕은 ‘大黃四兩(酒洗) 枳實三枚(炙) 厚朴二兩(去皮尖)’로, 대승기탕은 ‘大黃四兩(酒洗) 厚朴半斤(炙去皮) 枳實五枚 芒硝

Table 2. The Evidence for Dosage of Ha and Hwa-Treatment in *Seunggi-tang*

Prescription	Method of Treatment	Qualitative Volume	Quantitative Volume	Provisions
<i>Soeseunggi-tang</i>	Hwa-Treatment	少少與, 少與	一升/1~2 day (0.5~1升/1 day)	557. 得病二三日 脈弱 無太陽柴胡證 煩躁 心下鞭 至四五日 雖能食 以小承氣湯少少與 微和之 令小安. 至六日與小承氣湯一升.
	Ha-Treatment	分溫二服	一升二合/1 day	712. 下利 譫語者 有燥屎也 宜小承氣湯. [413]傷寒 小承氣湯方 大黃四兩(酒洗) 枳實三枚(炙) 厚朴二兩(去皮尖) 右三味 以水四升 先煮二味 取一升二合 去滓 納大黃 再煮一二沸 去滓 分溫二服 一服譫語止 若更衣者 停後服 不爾 盡服之.

Table 3. The Method of Treatment according to *Seunggi-tang*

Prescription	Terminology of Treatment	Method of Treatment	Number
<i>Doinseunggi-tang</i>	攻之	Ha-Treatment	409
<i>Soeseunggi-tang</i>	-	Unclear	518, 519, 712
	和胃氣/和之	Hwa-Treatment	513, 514, 556, 557
<i>Jowiseunggi-tang</i>	-	Unclear	329, 330, 408, 426, 512, 554, 555
	下之	Ha-Treatment	397
	和胃氣	Hwa-Treatment	372
<i>Daeseunggi-tang</i>	-	Unclear	513, 514, 517, 544, 547, 548, 585, 777, 938, 942
	下之/攻之	Ha-Treatment	521, 523, 526, 546, 562, 557, 558, 559, 560, 561, 562, 658, 660
<i>Seunggi-Bae</i>	-	Unclear	156, 247, 356, 520
	下之	Ha-Treatment	616

三合'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위승기탕의 구성은 '甘草二兩(炙) 芒硝半合 大黃四兩(酒洗)'와 '甘草一兩(炙) 芒硝半合 大黃四兩(酒洗)'로 되어 있다(Table 5) (Appendix 3).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계림고본에 언급된 승기탕에 대해 치법을 구분하여 승기탕의 임상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승기'라는 용어가 들어간 처방은 도인승기탕, 소승기탕, 조위승기탕, 대승기탕이 있었다. 하지만 247조에서 의승기배(宜承氣輩)에 언급된 방문에 도인승기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승기배에는 소승기탕, 조위승기탕, 대승기탕이 언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승기탕 조문에 언급된 치법용어는 '공지(攻之), 화지(和之), 화위기(和胃氣), 하지(下之)' 등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공법의 경우 '한법(汗法), 청법(淸法), 하법'이 포괄될 수 있으나, 처방의 성격상 여기서의 공법은 하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승기탕배의 치법은 '하법'과 '화법'으로 대부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승기탕은 '하법' 처방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다³⁻⁵⁾. 대승기탕을 사용하면서 '하지', 또는 '공지'라고 언급한 조문(521, 523, 557, 558, 559, 560, 562, 658, 660조)이거나, 조위승기탕을 사용하면서 '하지'라고 한 부분(397조)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하지'라는 언급이 없으나, 소승기탕을 사용한 518조, 519조, 712조의 경우 병증 자체가 조열, 조시 또는 대변이 경(鞭)하므로 소승기탕을 하법으로 사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기탕도 화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화법은 화해(和解) 또는 조화(調和)작용으로 병사를 제거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일종의 치법을 의미한다²²⁾.

계림고본에서 승기탕을 화법으로 사용한 처방은 소승기탕과 조위승기탕이 있었다. 일례로 513조에선 '若腹大滿不通者 可與小承氣湯 微和胃氣'라고 언급하면서 '물령대설하(勿令大泄下)'를 뒤에 추가하고 있다. 513조의 '미화위기(微和胃氣)'와 '물령대설하'는

Table 4. The Classification of Unknown Method of Treatment in *Seunggi-tang*

Prescription	Seunggi-tang					
	<i>Soeseunggi-tang</i>	<i>Jowiseunggi-tang</i>		<i>Daeseunggi-tang</i>		<i>Seunggi-Bae</i>
Method of Treatment	Ha-Treatment	Hwa-Treatment	Ha-Treatment	Ha-Treatment	Hwa-Treatment	Ha-Treatment
Number	518, 519, 712	329, 330, 408, 426, 554, 555	512	513, 514, 517, 544, 547, 548, 585, 777, 938, 942	356, 520	156, 247

Table 5.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Seunggi-tang* Prescription

Prescription	Number	Composition
<i>Doinseunggi-tang</i>	409	桃核五十個(去皮尖) 大黃四兩 桂枝二兩 甘草二兩(炙) 芒硝二兩
<i>Soeseunggi-tang</i>	712, 513, 156, 247	大黃四兩(酒洗) 枳實三枚(炙) 厚朴二兩(去皮尖)
<i>Jowiseunggi-tang</i>	156, 247, 512	甘草二兩(炙) 芒硝半合 大黃四兩(酒洗)
	329	甘草一兩(炙) 芒硝半合 大黃四兩(酒洗)
<i>Daeseunggi-tang</i>	156, 513, 658, 777, 938	大黃四兩(酒洗) 厚朴半斤(炙去皮) 枳實五枚 芒硝三合

557조의 ‘미화지(微和之)’와 ‘소소여’와 연관된다. ‘화지’는 화법을 의미함을 556조의 ‘與小承氣湯和之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514조 ‘其後發熱者必大便復鞭而少也 以小承氣湯和之, 不轉失氣者 慎不可攻也’에서 ‘以小承氣湯和之’라고 언급하면서 ‘慎不可攻也’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화법으로 사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소승기탕을 하법으로 투여했다면 이런 언급들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소승기탕을 화법으로 투여한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513조에서 ‘미화위기’하며 ‘물령대설하’하기 위해선 소승기탕을 화법으로 사용할 때의 분량이나 복용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557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至四五日 ... 至六日與小承氣湯一升’은 소승기탕을 화법으로 투여한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513조 소승기탕 방문을 보면 소승기탕을 하법으로 사용되는 하루 용량은 ‘일승이합’으로서, 이를 2회로 나누어 복용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至四五日...至六日與小承氣湯一升’에 대입해보면, 발병한 지 4, 5일째부터 소승기탕을 대략 1~2일간 소량으로 투여했고, 증상이 호전되어서 6일째에 비로소 소승기탕을 1승으로 증량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소승기탕 1승 이하는 통상의 소승기탕 분량인 1승2합의 83.3% (1승/1승2합*100)가 되고, 이를 1~2일간 투여했다는 점에서 용량을 계산해 보면 1일당 소승기탕 통상 용량의 41.7~83.3% 혹은 그 이하를 복용시키는 것이 소승기탕을 화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514조에서 ‘소여소승기탕(少與小承氣湯)’이라 한 것과, 557조에선 ‘소승기탕 소소여’라고 한 것도 화법으로 조금씩 투여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513, 514, 557조를 참고하면 이는 한 처방이 다른 작용을 하게 될 때 복용량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즉 하법, 화법 처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용량에 따라서 치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승기탕을 그대로 사용하면 하법 처방이 되고 줄여서 사용하면 화법 처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으로 1승의 용량이 65~70mL라고 알려져 있으므로²³⁾ 1승 2합은 78~84mL 정도가 된다. 따라서 상기 계산한 식에 의해 화법으로 사용한 경우 그 용량은 1일을 기준으로 32.5~70mL (1승 2합의 41.7~83.3%)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된다. 이를 1일 2회 분복하면 회당 16.3~35ml, 1일 3회 분복하면 회당 10.8~23.3ml 혹은 그 이하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복용량은 동일시하되, 약량을 줄여서 달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소승기탕을 화법으로 사용한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아래의 조위승기탕 관련 조문을 보면 조위승기탕도 하법 뿐 아니라 화법으로도 운영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72조의 ‘當和胃氣 與調胃承氣湯’이 그러한 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지’라는 언급이 없지만, 329조의 ‘若胃氣不和 ... 少與調胃承氣湯’, 라고 하여 조금씩 투여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330조는 내용이 329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30조의 조위승기탕 역시 ‘소여’한 것으로 보아 화법으로 사용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408조는 자하리(自下利)를 하는 상황에서 맥화(脈和)하기에 조위승기탕을 하법이 아니라 화법으로 투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426조도 자극토하(自極吐下)를 한 상황이기엔 화법으로 운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512조의 경우 ‘토하’의 오치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번이라는 상초 증상이 있으므로 상초와 중초를 소통하여 조화(調和)작용한다고 보면 화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554조는 증증발열(蒸蒸發熱)의 표증이 있는 상황이기엔 하법으로 적용할 상황보다는 화법을 우선 적용할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555조는 토한 후이기에 ‘위기불화(胃氣不和)’한 상황에 해당하기에 역시 화법으로 조위승기탕을 투여한 경우라 추정할 수 있다.

대승기탕의 경우 ‘하지’ 또는 ‘공지’라는 표현이 있는 조문은 하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 하법으

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513, 514, 517, 544, 547, 548, 585, 777, 938, 942조의 경우도 조시, 속식이 있거나 실증의 언급이 있어 하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승기탕의 경우 조문에서 대부분 하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화법으로 사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대승기탕을 화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승기배를 사용한 경우 616조는 ‘하지’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하법으로 볼 수 있다. 156조와 247조의 경우 백호탕 이후에 사용하였고, 실증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법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56조는 ‘頭痛有熱’이라고 하여 표증이 존재하므로 표증이 있을 경우 하법을 먼저 사용하기 어렵다는 조문들에 근거하여 화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표증과 리증이 동시에 있을 때 하법을 먼저 쓰지 않고 표증을 먼저 해결하라고 한 409조 ‘...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外’의 경우가 그 근거가 된다.

520조의 경우 ‘服承氣湯後 不轉失氣’라 하여 조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소승기탕을 화법으로 사용하여 실기(失氣)하는지를 알아보는 514조와 연계하여 볼 때, 화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승기탕 역시 소승기탕이나 조위승기탕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법의 변화가 처방의 본초구성에서 기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승기탕 처방의 방문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승기탕 방문은 동일한 본초와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조위승기탕의 경우 본초는 동일하지만, 감초용량이 2냥인 경우와 1냥인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조문의 증상에 따라 처방에서 약물을 가감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물론 이런 경우 통상 원방을 기술하고, 변화에 대해서는 약물 가감으로 기술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다. 두번째는 처방구성의 변화가 치법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156, 247, 512조가 하법이고, 329조가 화법으로 추정되

로 용량의 변화가 화법의 근거가 되는 점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통상 하법에 다용하는 대황, 망초의 용량이 변하지 않고 조화작용을 하는 감초가 줄었는데, 이를 화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329조에 ‘소여’라는 표현이 직접 있으므로 본초의 용량 변화가 화법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치법의 변화로 보기 보다 치법이 정해진 상태에서 처방의 가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역시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와 고찰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계림고본에 승기탕 치법은 화법과 하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승기탕을 하법으로 사용한 조문으로 409, 397, 521, 523, 526, 546, 557, 558, 559, 560, 561, 562, 658, 660, 616/156, 247, 513, 514, 512, 517, 544, 547, 548, 585, 777, 938, 942조 이고, 승기탕을 화법으로 적용한 조문은 372, 513, 514, 556, 557/329, 330, 356, 408, 426, 520, 554, 555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승기탕의 치법이 복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동일 처방이라 하더라도 치법이 달라져 승기탕의 임상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하나의 문헌을 이용한 점, 진단 기준과 맞물려 있어 승기탕의 치법별 주요증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요즘은 진통소염제 등의 남용으로 위장관 질환이 많아지는 시대이다²⁴⁾. 승기탕을 하법으로 활용한다면 위장관 질환에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 고찰한 바와 같이 승기탕을 화법으로 사용한다면 위장관 질환의 다양한 케이스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처럼 승기탕을 하법이 아닌 화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면, 소승기탕이나 조위승기탕 뿐만이 아니라 하법과 관련된 다른 처방들도 이런 방식으로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계림고본에서 언급하는 병증에 대한 표현이 현대적 병명이나 증상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한잡병론 계림고본에서 승기탕을 사용한 조문을 정리하고, 이 때 사용한 치법과 적용법을 살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승기탕을 활용하는 치법으로는 하법과 화법이 있었으며, 용량을 그대로 사용하면 하법, 복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면 화법이 됨을 알 수 있다.
2. 승기탕을 화법으로 사용할 경우 복용량은 1일을 기준으로 32.5~70ml 혹은 그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 이를 2회/1일 분복하면 16.3~35ml, 3회/1일 분복하면 10.8~23.3ml 혹은 그 이하가 된다.
3. 승기탕, 특히 소승기탕과 조위승기탕은 복만(腹滿), 초경후당(初鞭後滯) 등의 위장관 질환 및 증상에 화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승기탕을 화법으로 활용한다면 임상에서 그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승기탕의 용량에 따른 효능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적응증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Seo YB, & Kang HE. (2012). The statical analysis of GuiLinGuBon <ShanHanZaBingLun> prescription. J of Haehwa Medicine;21(1): 65-78.
2. Heo WY. (2017). DongEuiShanHanZaBingLun. Chunggu. Junggyeong Publishing House.
3. Oh JH, Kim BS, Lim HY, Choi BH, Kim DJ, Jun YI, et al. (2004). A Case of Stroke Patient Who Showed Improvement in Constipation, Chest Discomfort and Insomnia through Treatment of *Daeseungki-tang*. J. Int. Korean Med;25(2):307-313.
4. Koo BS, Kim YS, Lee DS, Moon SK, Go CN, & Cho KH. (2000). Effects of *Daeseungki-tang* on Constipated Patients. J. Int. Korean Med; 20(2):3-13.
5. Lee KS, & Kim YS. (2011). Effects of *Daeseungki-tang* on Cerebral Infarct of MCAO Rats. Kor. J Herbology;26(3):7-14
6. Byeon SH, Hur SC, Bye JH, Jo GM, & Lee SI. (2018). Analysis of pharmacological studies on the purgation effect of *Daeseunggi-tang*. Herbal formula science;26(1);27-41. <https://doi.org/10.14374/HFS.2018.26.1.27>
7. No YB. (2014). Auditory Hallucination in Schizophrenia treated by *Daeseunggi-tang* : A Case Report.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6(1):79-88. <https://doi.org/10.22891/kmedia.2014.6.1.79>
8. Kim HC, Ahn DK, & Kim YS. (1999). Neuroprotective Effects of *Daeseungki-tang* on the Brain Ischemia induced by Four - Vessel Occlusion in Rats. Kor. J Herbology;14(1): 131-140.
9. Choi EB, & Kim YS. (2008). Effect of *Daeseungki-tang* on Apoptotic Neuronal Cell Death of MCAO Rats. Korean J. Oriental Physio-Pathology;22(2):403-409.
10. Kim JB, Choi SH, & Ahn KS. (1997). Study on the Effects of *Taorengchengqi-tang*(桃仁承氣湯) and Its Components on Blood Stasis Model. Kor. J Oriental Medical Pathology;11(1): 65-75
11. Jo HC, Chu MK, Park SG, Yang MS, An GY, Kang SI, et al. (2009). A Case Report of Prescribing *Doinseunggi-tang* (*Taorengchenqi-tang*) for the Patient with Thoraco-Lumbar Compression Fracture. J Oriental Rehab Med;19(3):111-121

12. Kim JB. (1999).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Doinseunggi-tang* and *Kyejibokryonghwan* on Blood Stasis Model. *Semyung University Papers*;2(1):79-94
13. Bang JK. (2014). A Study on the Syndrome of *Soseunggi-tang*(小承氣湯證) in Sanghanlon(傷寒論).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27(1): 57-65. <https://doi.org/10.14369/skmc.2014.27.1.057>.
14. Min JH, Lim HT. (2014). A Case Report of Mood Disorder treated by *Soseungki-tang*.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6(1): 89-96. <https://doi.org/10.22891/kmedia.2014.6.1.89>
15. Yoon JH, Park SB, Kim EH, Lee JY, & Yoon SW. (2022). A Case Report on Opioid-Induced Constipation in a Patient with Cancer Treated by *Jowiseunggi-tang*. *J. Int. Korean Med*;43(2): 229-236. <https://doi.org/10.22246/jikm.2022.43.2.229>
16. Lee IJ, Lee DM. (1994). The Effect of Some Antipolydipsia Oriental Prescriptions on Experimental Diabetic Rats -*Cheongsimyeonja-eum*, *Kamijowiseunki-tang*, *Kikukjihwang-tang*-. *Yakhak hoeji*;38(5):555-561
17. Kim MK, Kim JY, Choi HG, Ahn J, Jeong HI, Seo HS, et al. (2022). A Case on Combined Korean Medicine of Adult Chronic Urticaria with Papular Form.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35(4):200-208. <https://doi.org/10.6114/jkood.2022.35.4.200>
18. Moore N, Ganse E, Parc JL Wall R, Schneid H, Mahdi F, Verrière F, & Pelen F. (1999). The PAIN Study: Paracetamol, Aspirin and Ibuprofen New Tolerability Study A Large-Scale, Randomised Clinical Trial Comparing the Tolerability of Aspirin, Ibuprofen and Paracetamol for Short-Term Analgesia. *Clin Drug Invest*;18(2): 89-98.
19. Paek YJ, & Yoon JL. (2014). Aspirin in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ncer. *Jkma*;57.4.343. <http://dx.doi.org/10.5124/>
20. Alireza FN, Mohammad A, Ali E, & Esmaeil DA. (2018). Effect of fisetin supplementation on inflammatory factors and matrix metalloproteinase enzyme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od Funct*; 25;9(4):2025-2031. doi: 10.1039/c7fo01898c.
21. 全小林. (2015). 方藥量效學(2版). china. 科學出版社
22. Han MG, & Heo SY. (1998). A Review Study on the Prescription of ShanHanLun through Eight Therapeutic Laws. *J Oriental Rehab Med*;8(2):127-143.
23. Kim IL, Jo SH. (2003). Study on one seong of Shanghanlun. *Kor. J Herbology*;18(3):15-20
24. Kim JW. (2008). NSAID-induced Gastroenteropathy.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52:134-141.

ORCID

장은수 <https://orcid.org/0000-0002-5776-0217>
 한우진 <https://orcid.org/0009-0007-7257-2330>
 허원영 <https://orcid.org/0009-0001-0352-186X>